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1월 9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식중독예방과장    오성숙 ☎440-7971 • 담당자                임수선 ☎440-79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연속 8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  
 - ‘식중독균 추적관리’ 최우수기관 연속 8회 수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기관 상은 식약처에서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분야 3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로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율, 식중독균 검출률 및 분자 유전학적 검사(PFGE) 식중독균 기여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1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율은 원료성 식품을 대상으로 잠재적 오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오염원의 기원을 추적하고자 병원체 자원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농·축·수산물 총 541건을 검사했고 균종별로 캠필로박터균 149건, 비브리오 99건, 병원성대장균 51건 등을 분리했다.

또한 식중독균 검출률은 유통 식품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추적의 적극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유통 식품에서 13건,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에서 1건의 식중독균을 분리했고 균종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6건, 황색포도상구균 5건, 캄필로박터균 1건, 살모넬라 1건, 리스테리아 1건이었다.

마지막으로 PFGE 식중독 기여도는 식품의 생산-소비 전과정에서 분리된 식중독균의 특성 정보 등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비교·분석해 신속·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표로 PFGE 대상균주(307건)의 높은 분리도 식중독균 유전자 데이터 확보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식품의 기준·규격 검사,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급성 설사 질환 병원체 감시 사업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기관의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기관상은 올해까지 연속 8번째로 전국에서 최다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상은 연구원의 식중독균 추적관리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물로,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새로운 검사법 도입 및 잠재적 식중독 위해요소에 대한 사업발굴로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